

니까야서 길을 묻다 7. 계율 정신의 근원④

계(戒)는 도덕성의 완성

지금까지 '계율정신의 근원'을 찾아보기 위해 니까야에 나타난 부처님의 생각을 더듬어 보았다. 불교 밖의 사유체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계율정신'이라는 말을 썼지만, 불교 안의 사유방식으로 말하면 계(戒)와 율(律)의 의미는 다르다.

'계(戒)'는 팔리어 '실라(sīla)'를 번역한 말로써 '습관, 성격, 도덕적 행위, 도덕성'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이 강조한 계율 정신에 토대하면, '실라'는 현대의 '도덕성' 개념에 가까운 말인 것이다. 여기서 도덕성이란 나와 남에게 유익함을 주는 행위, 오염이 아닌 청정함을 일으키는 행위를 비롯하여 궁극적으로는 해탈과 열반을 지향하는 길에 필요한 첫 번째 자선이 바로 '도덕(戒)'이라는 확신

면서 몸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의도를 품지 않고 악한 생계를 꾸려가지 않는 것, 이 네 가지 원리만으로 도덕성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미성숙한 견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생각한 도덕성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것일까? 이 경전의 끝부분에서 부처님은 '열 가지 법'을 별도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육가하마나'가 제시한 '네 가지 법'에 비해 더욱 훌륭한 범으로써 불교적인 도덕성의 완성으로 이해하기 쉽다. '열 가지 법' 중에서 여덟 가지가 바로 '여덟 가지 적절한 수행의 길(八正道)'이고, 나머지 두 가지도 바로 지혜와 해탈이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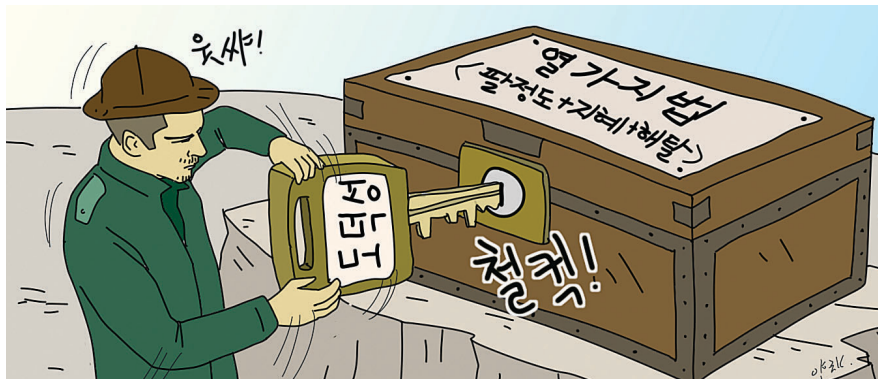


그림 · 양경수

에 기초한 인식과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종교 일반의 '율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 특정한 종교 안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의미하는 말이 율(律, vinaya)이다. 구체적으로는 승려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규범 그리고 교단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일련의 규칙을 의미하고 한다.

[맛지마 니까야] 제78 '사마나판디카' 경에는 재가자인 '판차카가'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건축 일을 하던 재가불교도로써 하루는 이웃 종교의 수행자인 '육가하마나'를 만나게 된다. '육가하마나'는 '판차카가'가 불교도라는 사실을 알고서 최상의 수행자가 될 조건으로써의 네 가지 법을 제시하며 자기 종교의 계율관을 가르친다. 네 가지 법이란 신체로써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며, 먹고 사는 일에 잘못된 선택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비관은 매우 단호하다. 그들의 견해는 마치 몸을 뒤집지도 못하여 누워서만 지내는 갓난아이와 같다고 일축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

문에 불교수행의 근간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계율정신인 '도덕성의 완성'을 지향하는 정신의 본연을 찾고자 한다면, 열 가지 법을 해아리기에 앞서 '육가하마나'의 주장에 대해 부처님이 반문을 펼치면서 보여준 사유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이 '불건전한 도덕적 행위'이고,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나고, 어떻게 소멸하며, 소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한다. 다시 '불건전한 의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며 참된 도덕성에 대한 성찰을 심화시킨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며,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성취하기 위해 그 방법의 길을 모색하는 사유의 여정에서 참된 도덕성을 성찰하는 태도야말로 계율 정신의 본연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계율 정신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구현한다면 계율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산문 밖의 禪

육명심 사진가

"선(禪)을 아는 사람이 시를 쓰면 그것이 곧 선시이고, 선을 아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곧 선화죠. 그리고 선을 아는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선사자인 것이죠." 50년 동안 사진가로 살아온 노장은 그렇게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열고 있는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사진부문 첫 전시 육명심 전(2015. 12. 11~2016. 6. 6 과천관)'의 주인공 육명심(84) 사진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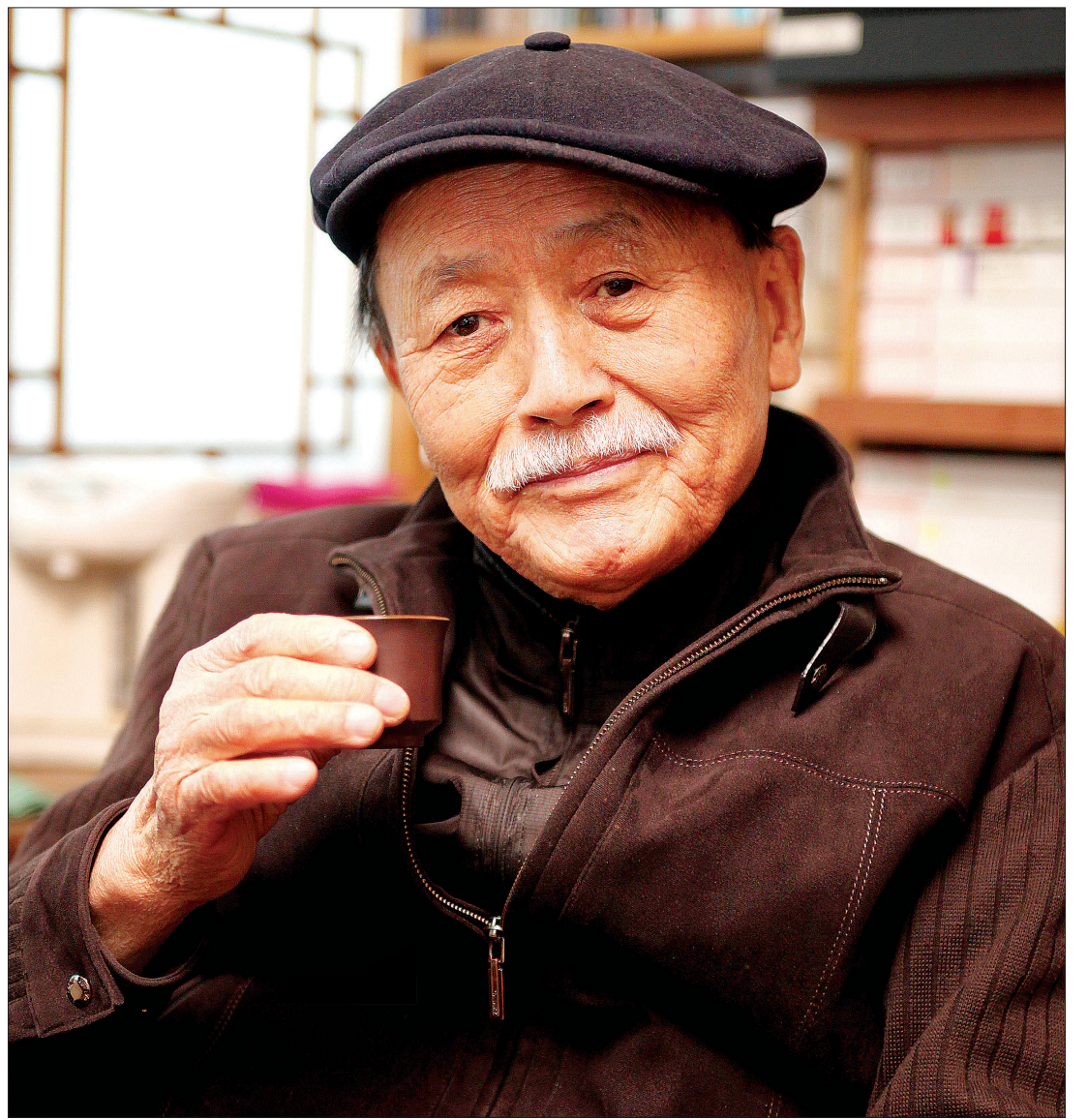
20여 년 동안 참선을 해오고 있는 그가 그동안의 작업을 통해 들은 한소식을 전한다. "선사일여(禪寫一如)" 선과 사진이 같은 세계라고 말하는 그가 그 한소식을 듣기까지의 이야기다.

그리움의 땅, 서방정토

"이 나라에서는 하늘이 곧 사원의 천장이다. 그리고 국토의 전역이 그대로 사원의 마룻바닥이다. 이렇듯 티베트는 마치 거대한 하나의 자연사원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일단 티베트에 입국하면 어디를 가나 우리는 사원의 경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셈이다."

그의 사진집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하 '하늘과 땅')>의 '들어가는 글'에 이어지는 흑백사진 속에는 흑백으로 치환된 티베트의 푸른 하늘이 천장처럼 드리우고, 작은 사원의 돌담 한 쪽이 광활한 대지와 이어진다. 그 대지 끝에서 카일라시산이 하늘과 이어지고, 그 능선에서 불어온 바람이 돌담 위에 걸린 오색 타초르의 염원들을 읽고 지나간다. <하늘과 땅>은 그가 1997년부터 작업해 온 티베트와 부탄, 라다크에서 찍은 사진들을 묶은 것으로, 그의 사진인생 50년을 정리하는 이번 전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작품들이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사진들은 그에게 있어 보다 더 특별하고 각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티베트는 더욱 그렇다.

"내가 일곱 살 나던 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당시 아버님은 출가한 스님이셨기에 절에서 다비식을 치렀어요. 아직 젊은 나이였죠. 그리고 나선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저절로 절에 가곤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 여쭙죠. 돌아가신 아버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어머니가 답하시기를 아버님은 아주 먼 서방정토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에 있냐고 다시 여쭙더니, 어머니는 해가 지는 서쪽으로 가고 또 가면 그곳이라고 하셨죠. 그 후 저는 해가 지는 황혼녘이면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 후 서방정토의 뜻을 알았고, 너무나 아득히 먼 곳으로 느껴졌어요. 좀 더 성장한 후에 불교의 세계에는 수미산이 있으며, 먼 서쪽 티베트에 수미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면 아버님이 가신 서방정토에 이르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품게 됐죠. 이때부터 티베트는 내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픈 나라가 되었어요." 그는 예순다섯 되던 해인 1997년에 처음으로 그리움의 땅 티베트를 밟는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진인생에서 또 하나의 시대를 만들기 시작한다. 선사일여.



육명심 사진가는... 1932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1952년 대전사범대학과 1960년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대전대 성고교와 서울 배재고교 영어 교사를 지낸 후 1972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 예술대학) 사진과 대우교수로 부임했다. 1975년 신구전문대 사진과 창설 교수로 부임했고, 1981년에는 서울예술전문대학 사진과 창설 교수로 부임했다. 1999년 서울예술전문대를 정년퇴임 한 후 2년간 숙명여대 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그리움이 종교가 된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일곱 살 때 절에서 전해온 선친의 유품인 목탁과 표주박, 회중시계가 그가 경험한 유일한 선친의 흔적이다. 그의 선친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속리산의 한 암자에 사미로 출가했다. 세간에서의 명(命)이 짧을 것이라는 절대 때문이었고, 그 운명을 비켜가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그의 선친은 출가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의 선친은 삼형제 중 막내였는데 두 형님들이 모두 대를 잇지 못했다. 집안의 대가 끊길 판이었다. 선친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환속하여 앞서 말한 어머니와 혼인을 하게 된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선친은 혼인한 지 반년이 채 안 됐을 때,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을 '명심(明心)'으로 지으라는 쪽지 한 장만을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소식을 끊는다. 후에 돌아온 선친의 유품이 절에 있었던 걸로 보아 선친은 출세간의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명심'이라는 그의 이름은 불가로부터 받은 불명(佛名)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로부터 불명을 받아 태어났으며, 그렇게 태어난 그의 몸과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는 불가적(佛家的) 내림이 깃들여 있었다.

우선은 아버지가 그리웠다. 분명 존재했으나 본 적이 없는 아버지, 본 적은 없으나 자신의 이름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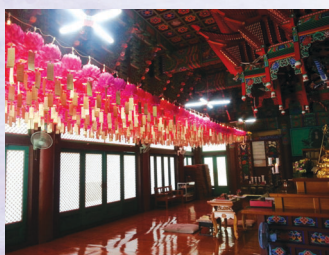
분명하게 관여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메시지가 불치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런 그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그를 불가의 마당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그의 종교는 그리움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으며, '명심'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에 가는 어려서부터 절에 가는 일이 마치 학생이 학교에 가는 일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우면서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움 아버지를 보러 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손을 이끌었던 그의 어머니 역시 그리움 남편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어머니의 종교 역시 그리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한 여인은 남편이 그리워 절에 가야했고, 어린 소년은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했던 것이다. 두 사람의 종교는 그렇게 시작됐고 그렇게 완성되어 갔다.

이루지 못한 출가

남편과 아버지의 부재는 한 여인과 소년에게 어쩔 수 없는 '결핍'의 짐을 지게 했다. 그의 어머니는 행상으로 집을 나가있는 날이 많았고, 그로 인해 소년 육명심은 큰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다. 큰집이라고는 하나 친부모의 그늘과는 다른 그늘이었다. 밥은 먹었으나 사랑과 관심은 맛 볼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시대적 상황이 삶의 8할을 쥐고

사찰고급연등·자동승하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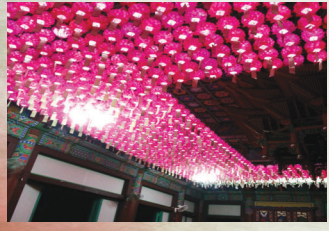
시공전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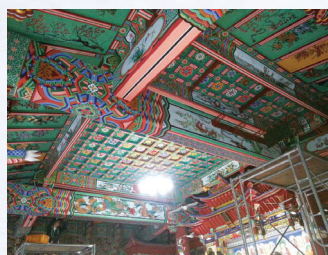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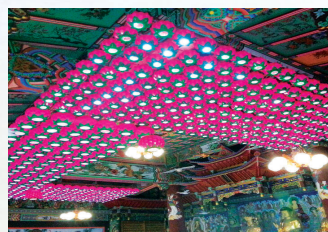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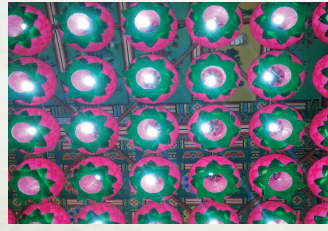
시공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 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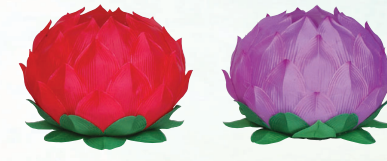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가야 궁단등 : 다홍, 보라 8cm



▶비닐만일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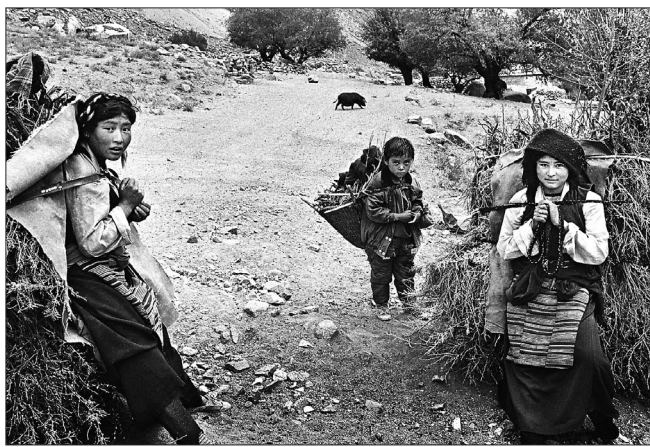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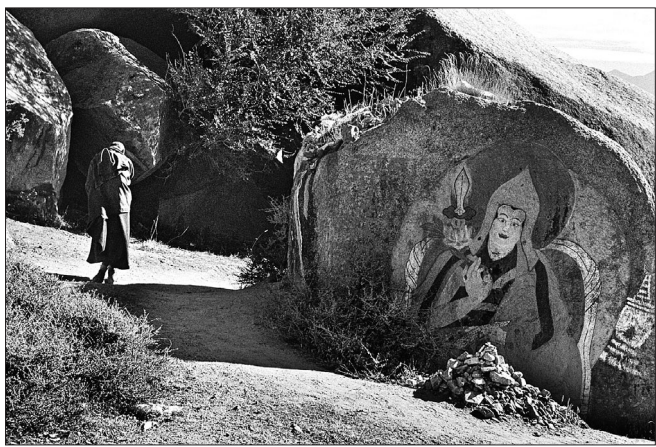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사진은 피사체와의 소통과 교감”



사진집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실린 작품들로 티베트, 부탄, 라다크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여행자의 눈이 아닌 현지인의 눈으로 찍은 사진들이다. 작가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보다 자연의 위대함에 기대어 살아오고 있는 그들이 훨씬 더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가운데 사진은 참선하는 육명심 사진가.

있던 시절이었다. 친부모의 그늘에서도 꽃 같은 사랑과 바다 같은 관심은 쉽지 않은 시대였다. 소년 육명심은 외롭게 컸다. 어린 소년의 고독은 모든 것을 그렇게 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다. 그것은 그의 종교 또한 막연함을 벗어나 구체적인 종교로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다르게 심어진 종교의 씨앗은 이른 시간에 싹을 틔웠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출가에 대한 발심을 한다. 크레용으로 그린 부처님을 운동화 상자에 모시고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아들의 대답은 역시 ‘스님’이었다. 불가에 남편을 묻은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어머니의 얼굴을 본 아들은 발심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출가란 빠져서 고독으로부터 온 메시지 같은 것이었다. 운명처럼 지나게 된 그의 불가지 모색은 또 다른 운명에 의해 갈 수 없는 길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그때 이미 출세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깊은 고독으로부터 온 발심. 그것은 그가 이미 불가의 문자를 읽었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는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출가를 이룬 것이다. 그리고 불가의 문자를 읽어낸 초등학교 5학년 육명심의 눈과 마음이 지금의 사진가 육명심의 눈과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그의 사진이 단순히 현실을 담아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한 장의 사진 속에 지나간 시간의 여운과 다가올 시간의 짐작이 공존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그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예술의 영역이 그렇지만 특히나 그의 사진은 언어로 설명하기 힘들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그의 사진이다. 언어가 있기 전의 자리와 언어가 지나간 자리에서의 ‘주교 받음(소통)’이 그의 사진임을 볼 때 그의 사진세계를 만들어내는 그의 눈과 마음은 언제인지 모르나 불가의 문자를 읽어낸 것이 분명하다.

“사진은 표면의 기록이 아닌 대상과의 소통”

사진가 육명심은 한국 사진사(寫眞史)에서 예술 사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던 1960년대에 사진을 시작했다. 서른셋에 결혼한 그는 아내가 혼수로 가져온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는 카메라를 잡은 지 2년 만인 1966년에 제1회 동아국제사진살롱에서 입선하며 사진계에 정식으로

‘명심’ 이름 주고 간 선친은 스님

평생 못 보고 7세 때, 부음 들어
고독한 유년 살며 선친 그리워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종교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출가발심
어머니의 만류로 출가 못해

독특한 시선 한국현대사진 이끌어

아내의 혼수 카메라로 사진 시작
콘테스트 입상하며 사진계 입문
한 가지 주제에 오랜 세월 몰두
선과 닮아 ‘선사일여’ 깨달아
20여 년간 새벽 2시50분 기상 참선
마지막 주제는 1700년 한국불교

입문하게 된다. 그 후로도 각종 콘테스트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그는 당시 국내 사진계의 주류를 이루던 리얼리즘 경향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을 통해 한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다루는 작업을 선보인다. 그런 그의 시선은 1980년대 한국현대사진의 본격적인 시작과 이어진다.

“사진은 표면의 기록이 아닌 사진에 찍히는 대상과의 소통이다”고 말하는 그는 국내 사진계에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이론가이자 독특한 교수법으로 걸출한 제자들을 길러낸 교육자이기도 하다. 그의 사진은 모두 흑백이다. 표면의 기록이 아닌, 대상의 궁극과의 소통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소통과 교감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낸다. 그가 색깔을 덜어낸 흑백을 고집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테마를 잡으면 몇 년에 걸쳐 그 한 가지 테마만을 찍는다. 아무리 좋은 그림을 만나도 정해놓은 테마에서 벗어나

것은 찍지 않는다. <백민(白民)>, <검은 모살뽕>, <장승>, <예술가의 초상>,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등 그의 시리즈는 그렇게 이어진 것이다. 그것 역시 제대로 된 소통과 교감을 위해서다. 오랜 시간을 두고 한 가지에만 전념할 때 그 대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서두에 말한 선사진에 대한 신념과 그가 불가의 문자를 읽어낸 증거를 볼 수 있다. 한 가지만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 그것은 선으로 가는 길과 닮았으며, 불가의 문자와 닮았다. 그는 그렇게 사진을 하며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사일여’라는 한소식은 결국 그가 5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었다. 길이 다시 길을 내고 그 길이 또 다른 길을 내어 한소식에 다가간 것이다.

그는 1999년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정년퇴임한 후 본격적으로 티베트와 부탄, 라다크 등 불교를 땅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을 찾았다. 그는 ‘선사일여’의 본격적인 시작을 <하늘과 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테마는 ‘1700년 한국불교’라고 말했다. <하늘과 땅이>는 한국불교를 찍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십여 년 간 티베트와 그 주변 지역들을 참 많이도 찾아다녔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제는 이 긴 여행의 자락을 접으려 한다. 중국 본토와 티베트를 잇는 철도와 도로가 잇따라 개통되면서 티베트 고유의 문화와 종교가 속절없이 파괴되었다. 게다가 이제는 경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물질문명이 이 신성한 땅을 무서운 속도로 잠먹어 들어가고 있다. <중략> 그리하여 그동안 이곳과 맺었던 인연과 추억을 한 권의 사진집으로 봉인한다. 아무쪼록 불국토의 나머지 나라들이 티베트의 비극을 되풀이함이 없이 그들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고스란히 지켜나가기를, 그래서 여기 실린 사진들이 지나가버린 날들의 한낱 전설로 남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가 1700년 한국불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은 이유도 위와 맥을 같이 한다. 이 땅의 밀그림이며 기둥이며 지붕 같은 1700년을 이 땅에 머물렀던 인연으로 회상하고 싶은 것이다. 그는 오늘도 새벽 2시 50분에 어김없이 눈을 떴다.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와 만났다고 했다. 매일 먼 우주에서 돌아와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또 다른 우주를 향해 나가는 그의 눈 속에서 잔잔하게 한 소식이 들려온다. “선사일여.”

박도일 수필가 doi3012@daum.net

전법일기

“우리 애가 우영을 저리 잘 먹다니”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살펴보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다.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달고 기름지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줄 낸다. 왜 아이들은 순하고 맑은 음식은 ‘맛없다’고 여기고, 달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맛있다’고 느낄까. 가끔 엄마들에게 제철채소 반찬을 아이들 밥상에 올리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원래 안 먹어요”라고 답한다. 과연 아이들의 입맛은 ‘원래’ 그런 것일까.

몇 년 전부터 여름방학마다 초등학교 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찰음식을 기반으로 한 급식레시피 개발이 목적이지만, 많은 영양사들이 나의 강의를 듣고 ‘음식’에 대한 생각

‘미각 교실’을 열었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만드는 밥’을 배우러 온 아이들은 한껏 들떠 소란스럽기까지 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합장을 하게 하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우주의 좋은 기운을 담아 나와 내 주위를 비춘다’라고 설명해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열려 두 손을 오르리며 눈을 감았다. 빠르게 설명해주면 그대로 따르는 마음이야말로 아이들의 본래 심성이다. 그 본성을 모르는 어른들은 ‘우리 애는 원래 안 먹어요. 단 걸 좋아하고 고기만 먹어요’ 하면서 입맛을 길들이는 것이다. 그날 실습한 요리는 우영당근주먹밥, 아이들이 좋아하는 채소다. 나는 기다란 우영 뿌리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우영은 햇빛과 빗물을 먹고 땅 속 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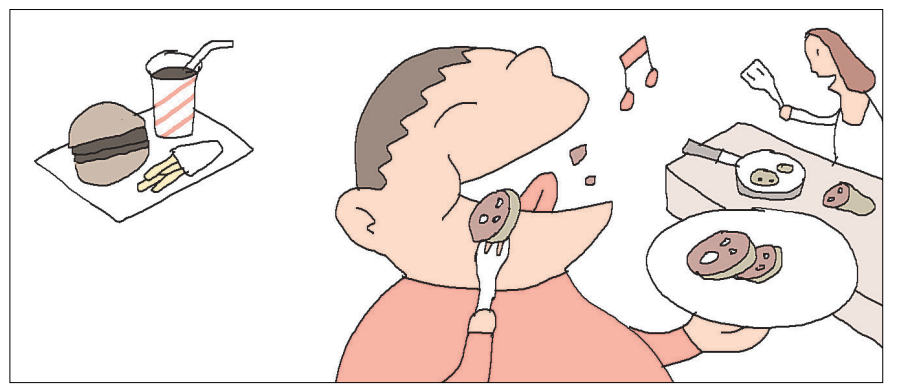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을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정년이 2년 남았다는 한 영양사는, 지금껏 잘해왔는데 왜 이런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좀 짜증이 났다고 했다. 그런데 음식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과도 관련이 깊고, 특히 아이들의 성품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다고 했다.

“스님, 저는 아이들이 밥을 남기면 안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로 튀기거나 달고 짠 반찬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스님 강의 듣고, 좋은 음식을 잘 먹게 하는 게 더 중요함을 알았어요. 언젠가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 만났는데 티베트에서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제가 만들어준 음식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겠구나, 생각되네요.”

“바르게 알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지요.”

“네, 스님, 말씀이 옳아요. 남은 2년 동안 아이들에게 정말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입맛은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것임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최근 안국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유치원, 초등학교생과 엄마들을 모아

숙이 자란답니다. 어두운 땅 속에서 자라려면 참을성이 있어야겠지요? 스님이 조금 전 ‘자연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우영을 먹으면 우리도 인내심이 생긴답니다. 자, 이 우영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확정한 대답 속에 누군가 “지팡이요!”라고 말했다. 맞다. 지팡이. 노인의 발이 되어주고 삶의 버팀목이 되는 지혜의 물건! 좋은 답이라고 칭찬한 뒤에 이어서 말했다.

“맞아요. 우영은 지팡이처럼 우리를 씩씩하게, 지혜롭게 해줍니다. 자, 이제 두 눈을 꼭 감고 우영을 꼭꼭 씹으면서 우영을 키워낸 땅과 물, 바람, 햇볕, 농부의 손을 생각해봐요.”

시종일관 까르르, 와하하 웃음 속에 진행된 미각 교실이 끝나고, 엄마들의 뒷담이 귀에 들려왔다. “우리 애가 우영을 저렇게 잘 먹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중생들에게 대화로 써 깨달음을 실한 부처님의 가피가 오롯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긴급 모객 상품
미얀마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출발일 : 3월 30일, 동참비 : 209만원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천불 천탑의 신비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벤피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4대 불산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이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현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가르-룸비나-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 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그리야-폴른나루와-알루비하라-켄디
-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그리야-폴른나루와-알루비하라-켄디
-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그리야-폴른나루와-켄디-누와리엘리아-벤토타
-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그리야-폴른나루와-마탈레-켄디-콜롬보-룸비나-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르나-바이살라-쿠시나가르-쉬라바스티-룸비나-카트만두-나가르코트

마하연의 특별함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싸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현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사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